

18세 유권자 “소중한 한 표 행사”

전북고등학교회장단연합, 투표참여 홍보영상 ‘청소년 참정권 궁금해?’ 화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고3 세대가 유권자들이 직접 만든 선거참여 홍보 동영상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북고등학교회장단연합은 최근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교육을 위해 [Q&A] 청소년 참정권 궁금해? 라는 주제로 9분 20초 분량의 동영상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전북여고 3학년 김정민 학생과 기전여고 2학년 이예담 학생이 출연해 선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대화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생애 첫 선거를 치르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과정과 투표방법 등을 Q&A와 브이로그 형식으로 유용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2일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의 조회수는 8일 현재 835회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북고등학교회장단연합 11기 학생은 모두 62명이며, 이 가운데 17명이



전북고등학교회장단연합은 만 18세 유권자 대상 올바른 선거교육을 위해 [Q&A] 청소년 참정권 궁금해? 라는 주제로 9분 20초 분량의 동영상 자체 제작했다.

지난 1월부터 ‘청소년참정권 영상 TF팀’을 꾸리고 2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김정민(전북여고 3)학생은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연락을 많이 했다”며 “첫 투표권을 갖게 되었지만 선거에 무관심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경빈(술내고 3)학생은 “동영상 기획부터 스튜디오 촬영, 편집, 시나리오 작성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목소

리가 반영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준(신흥고 3)학생은 “참여하지 않으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친구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18세 투표권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채(전북여고 3)학생은 “선거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선거 후에도 당선자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지 않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동영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세대기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선거관련 내용을 바로 알아 자기 판단과 책임감을 갖고 올바르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북지역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는 모두 6,504명이다. /장은성 기자

“개방형 체육회관 건립”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 지역특성 살린 사업 등 구상

“배려와 존중이 있는 체육회,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군산시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체육행사가 중단돼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육회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군산도시가스 대표인 윤 회장은 기업인답게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안정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회장은 “단순한 업무과외가 아닌 실질적인 현안과 직원들의 고충 등을 알기위해 모든 직원(지도자 포함)들과 1대1 면담을 했다”며 “인력 부족 등 사무국이 정말 고생하고 있어 채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군산시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현재 군산시체육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관광명소이자 도심 속 자리잡은 은파호수공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호수가 있는만큼 카누와 카약 등을 하면 시민들이 즐겁게 체육을 접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취미로 시작하다보면 시민



들 가운데 재능을 발견, 선수로 거듭날 수도 있고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군산시체육회관 건립, 학교체육 육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기업 종목단체 후원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체육을 단계별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해 우수선수와 유능한 지도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며 “특히 체육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후배들 큰 뜻 퍼나가길”

전북대 박기운씨 장학금 기탁

“그저 기계공학과 후배들이 어려움 없이 큰 뜻 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4세의 박기운 전북대 동문(기계공학과 56학번)은 매년 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기계공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을 기탁한 박 동문은 지난해 500만 원, 그리고 올해 발전지원제단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

1956년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박기운 동문은 어려서 오빠를 잃고 2018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매년 이어지고 있다. 박 동문은 “더 늦기 전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적은 금액이라 오히려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린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 뜻을 퍼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일 전주의 중견 외식업체인 이중본(대표 김연남)이 전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전주 외식업체 이중본, 전주대에 1000만원 기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8일 전주의 중견 외식업체인 이중본(대표 김연남)에서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중본은 코로나19로 외식산업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주대의 발전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

금을 선포 내어 놓았다. 이중본 이충재 기획실장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매년 꾸준히 학교를 위해 기부하는 나눔의 손길에서 선한 진심이 느껴진다”며, “전주대 발전과 학생 학업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중본은 지난 2004년부터 약 20회에 걸쳐 전주대 발전기금으로 3,400여 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코로나 대응 동영상 제작

등교시 발열검사 등 4편 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총 4편으로 ▲체온계 사용법 ▲손소독법 ▲등교시 발열검사 ▲교실 일상소독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연수 지원을 위해 보건교사로 꾸려진 TF팀에서 제작·보급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발열검사에 있어서는 교문 앞, 현관 앞, 교실 안, 통학버스 탑승시 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을 둔 올바른 측정법과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 동영상은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이미 내용 검토를 마쳤으며, 교육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물론 블로그·유튜브·페이스북에도 올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영상 제작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교사 TF팀과 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전주새솔유치원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움도 받았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은 체온계 사용법, 손소독법, 등교시 발열검사, 교실 일상소독법 등 코로나19 대응 맞춤형으로 제작했다”면서 “동영상 내용을 잘 숙지해 개학 후 학교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